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④ 썩는 것이 아름답다



▶한줄 요약
생산-소비-분해로 이어지는 자연계의 사이클은 곧 순환의 삶이다. 하지만 원전 폐기물과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아 순환의 삶을 망친다. 경쟁하지 않으며 작게 천천히 살아가는 삶이 곧 생태적인 삶이다.

순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들. 이들 용기들은 수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순환의 삶을 방해한다.

자연계선 순환의 삶이 기본 원칙
플라스틱 · 원전폐기물 순환 방해
작게, 천천히 사는 삶이 '생태적'
불자라면 지구 위한 삶 살아가야

Rot is Beautiful!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을 윤회하고, 마음은 생주이멸(生住離滅)을, 인간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윤회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렇게 자연은 돌고 도는 순환을 특징으로 한다. 식물들은 땅의 수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빛과 바람과 비를 먹고 자라 영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들이다. 이것을 먹는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 라고 한다. 그리고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2차 소비자' 라고 한다. 이 동물들이 죽으면 곰팡이나 박테리아, 세균, 곤충 등이 이들 유기물을 분해한다고 하여 이들을 '분해자' 라고 한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물을 양분으로 해서 생산자인 식물이 자라며, 이것을 다시 소비자인 동물들이 먹는다. 이렇게 자연계는 생산자-소비자-분해자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동물과 식물 등 유기물들은 잘 죽어야, 잘 썩어야 자연계의 이러한 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넘쳐나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일회용으로 불과 몇 분만 사용되고 버려지면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수천수만 년이 걸린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햇빛을 받으면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땅속에 물속이나 바다 속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의 체내로 들어간다. 그것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어 결국 우리 몸속에도 축적된다.

콘크리트 건물이 대개 그렇듯이 핵발전소는 수명도 30년이다. 우리 시대 30년간의 전기 소비를 위해 곳곳에서 나오는 방사능 재인 플루토늄 등은, 방사능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10만년이 걸린다. 비닐, 플라스틱, 방사능폐기물 등 썩지 않는 물질들은 자연의 순환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잘 썩는 것, 잘 사라지는 것 그래서 자연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며 자연의 이치이다.

여기에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잘 죽어 후대들 삶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안 죽으려는 온갖 탐욕의 몸부림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만드는 것이다.

Small is Beautiful!

생태적 삶은 결국 '작게 사는 삶(Small Life)' 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삶이야 말로 자연친화적인 삶인 것이다. 이제껏 "큰 것이 좋은 것", "많은 것이 아름다운 것" 이라는 생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삶을 행복이며, 성공이라고 생각한 삶이 위기를 초래했다. 고립된 자신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과정에서 수많은 욕망과 삶들이 부딪치면서 개인 · 집단 ·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전쟁이 시작돼 왔다.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소외는 바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디는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는 항상 풍요롭지만, 탐욕 앞에서는 매우 궁핍한 곳"이라고 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 · 진 · 치(貪瞋癡) 삼독심의 시작은 결국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분노의 원인(瞋)이며 어리석음(癡)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친환경적 삶은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삶이다. 청빈의 삶은 정신의 풍요로움, 마음의 넉넉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마음공부, 수행과 기도의 삶속에서 항상 자신을 살피며 욕망에 기초한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을 돌아보고 내려놓는 수행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힘이 바로 생태적 삶의 기본 동력이 되는 것이다.

Slow is Beautiful!

생태적 삶은 또한 '천천히 사는 삶(Slow Life)' 을 사는 것이다. 욕망의 삶은 더 많이 갖기 위한 경쟁을 끊임없이 유발한다. 남보다 먼저 쟁취하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의 문화가 '빨리 더 빨리'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속도사회는 오로지 목표에만 집착하는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며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산의 정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산은 괴로운 과정이 된다.

케이블카를 놓아 오로지 정상만을 정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직선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여 수직적 경제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목적과 목표만 생각하는 속도사회에서는 과정은 생략되고 관계는 파탄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다. 오로지 정점으로 향한 질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친환경적 삶은 천천히 밥 먹고, 천천히 걸으면서, 지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웃음을 교환하며, 들에 핀 꽃들을 허리 조아려 살펴보고, 스쳐지나는 경치와 건물과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관계하고 천천히 대화하며 사는 것이다. 신호등이 꺼질까봐 허겁지겁 건너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사는 과정에서 자연과 주변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하는 '신호등 명상' 이 있다. 바쁜 하루 중에 그대로 멈춰서는 시간은 바로 길을 건너는 신호등 앞에서일 것이다. 그래서 파란 신호등이 10초 이하일 경우 건너려는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순간 자신의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며 자신의 감각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천천히 사는 연습하는 공부가 된다.

Together is Beautiful!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생존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등 자연선택설을 사회에 왜곡 적용해 사회진화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사회도 그와 같이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와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사용되었고 근대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주류 논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오늘날 첨단 생태학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크로포트킨 등의 학자는 자연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며 협력하는 종이 자연계 진화과정에서 오래 살아남는 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연기적 가르침과 인드라망의 세계관이 바로 이러한 연관과 협력의 깨달음인 것이다.

경쟁주의는 죽음의 원리이다. 경쟁은 상대보다 앞서기 위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며 관계가 파탄난다. 사람과 자연을 경쟁하고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가 죽어야(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죽고 죽이는 그 시스템 내에서도 자신 또한 그 죽임을 피할 수 없다. 자연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생각해 '정글의 법칙' 이라는 말까지 하지만, 실제의 정글의 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필요가 없는데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사람이라는 이유로 참혹하게 죽이며, 저축하고 비축하고 쌓아놓으려고 한다. 자연은 궁극적으로 상호의존과 협력이라는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태사회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의 사회이다. 돈에 의존하는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이다. 돈벌이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사람들과의 협력과 돌봄, 배려와 상호도움을 통해 사는 사회이다.

Share is Beautiful!

그래서 생태적 삶은 '나누는 삶(Share Life)' 을 사는 것이다. 생태계가 서로 의존하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 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의 삶은 수많은 자연과 생명의 '은혜' 로 그 '덕분' 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 , '타인에게 잘 쓰이는 삶' , '배워서 남주는' 삶이어야 한다. 보살의 삶인 것이다.

내가 쓰는 물건, 먹는 음식 모두 수많은 사람과 생명들 '덕분에' 얻게 된 것이다. 내가 먹는 채소와 곡식들은 풀벌레, 새소리, 바람소리, 물, 햇살, 구름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품이다. 낱알 한 알에 우주가 들어있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또한 나도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의 죽음과 희생 덕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결국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이치를 깨달아 나의 삶을 타인과 뭇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아가 '그들을 위한다' 는 생각마저도 사라진 공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자신이 버는 돈과 시간의 일부분이라도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 사회단체에 후원도 하고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까지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다. 최근 책이나 장난감, 옷, 차량, 집,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공유문화, 공유사회' 라는 말, 또는 '커먼즈(Commons)' 와 '커머닝(Commoning)' 이란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두 서로 나누며 살려는 삶의 사례들이다. 생태적 사회는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의 삶이다.

생명 · 영혼 · 지구 구하는 삶

이러한 삶의 실천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SOL, Save Our Life)' 이며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일(SOS, Save Our Soul)이자 '지구를 살리는 일(STE, Save the Earth)' 이다. 작은 삶, 협력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은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깨달음은 자신의 의식적 각성에서 시작되어 결국 사회적 깨달음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다시 자기 자신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 짓을 하면 뉴욕에 태풍이 분다' 는 카오스 이론처럼 작은 실천은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된다. 역사 속에 격동의 변화도 처음에는 작은 행위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삶은 타인을 위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만든다는 점이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지구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불자가 되도록 하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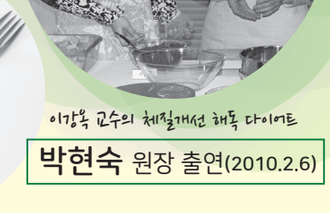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